

서울특별시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65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2년 8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농식품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여 입주공간 지원, 투자유치, 전문가 컨설팅,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등을 통해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민간위탁 운영 시설로,
- 나. 위탁기간이 2022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형 민간재위탁을 통해 입주기업의 육성 및 보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먹거리창업센터(개소일자 : 2016. 12. 7.)
- 위치 : 강동구 천호대로 1139(강동그린타워 8,9층)
- 규모 : 연면적 3,123㎡
- 수탁기관 :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대표 : 목영두)
- 운영인력 : 센터장 포함 4명
- 2022년 예산 : 862,913천원(민간위탁금)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2. 10. 1. ~ 2025. 9. 30.(3년)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위탁업무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시설 및 물품관리
 - 농식품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 입주자 모집 및 선정
 - 기술·마케팅·판로지원 등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기업입주 사무공간, 교육장, 시제품 제작실 등 운영
 - 기타 창업 정책 사업
- 소요예산 : 1,795,526천원(3년)
 - 2023년 579,770천원, 2024년 595,356천원, 2025년 620,4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분	수탁기간	수탁자	수탁자 선정방법	비고
1차	'16.10.24.~'19. 9.30.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공개모집	최초위탁
2차	'19.10. 1.~'22. 9.30.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재계약	

라.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먹거리분야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입주기업의 제품개발, 판로개척, 투자유치 확대 등의 노하우가 축적된 농식품 창업기업의 육성에 지원 기반과 추진 역량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가 있음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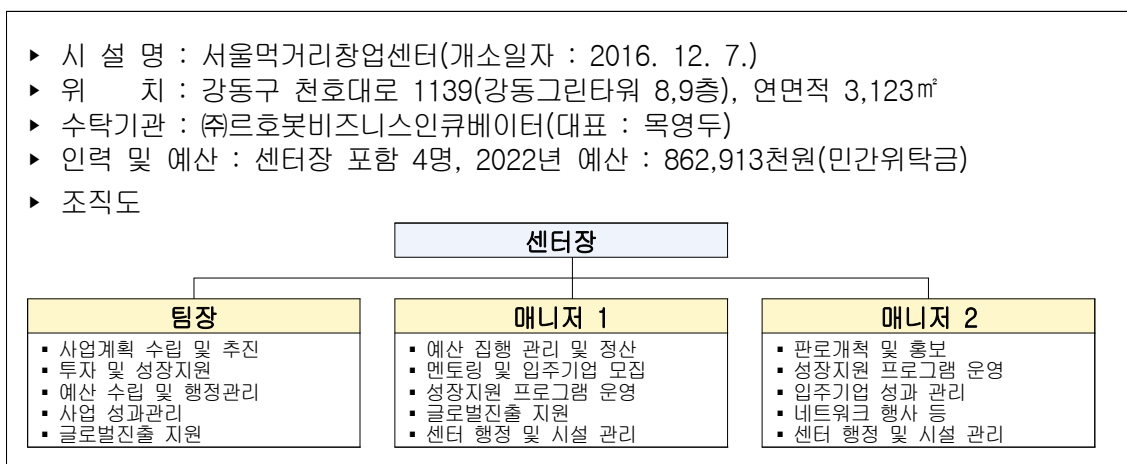
가. 동의안의 개요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이 최초 동의(2016.9.9.) 후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나.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는 농식품 분야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자, 2016년부터 서울먹거리창업센터²⁾(이하 “먹거리창업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개요 >



-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2항 단서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당초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음.

- 먹거리창업센터는 당초 가락시장 내 가락몰에 위치하였으나 보육 공간의 확장을 위해 강동구 소재 강동그린타워로 이전(2020.12.9.)함.
- 설립 이후 2021년까지 167개 업체 입주, 입주업체 멘토링 942건, 투자 유치 지원 266억원, 매출 670억원, 고용창출 613명 등의 실적을 보임.
- 또한, 먹거리창업센터에 입주한 퓨처푸드, 유통혁신 O2O 플랫폼 등이 기관투자 유치 성공, 해외 유명언론 기사화와 같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다수의 푸드테크 유망 스타트업을 배출함.

< 먹거리창업센터 입주 스타트업 성공사례 >

업체명	사업내용	성장내용
HN노바텍	해산물 유래 대체육 제조 핵심물질 (Heme 분자) 추출 기술	- 입주기간 중 기관투자 45억원 유치 - 싱가포르 현지 투자기관과 200억 규모 투자유치 MOU체결 -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공동 글로벌진출 MOU 체결
디보션푸드	곡류 주원료 대체육 개발	- 입주기간 중 기관투자 50억원 유치 - 대체육 분야 선도기업으로 주목받아 2021년 美 포브스지 선정 차세대 30세 이하 아시아리더 30인에 선정
리테일영	소상공인을 위한 식자재 유통 플랫폼	- 입주기간 중 시드투자 유치 성공 - 기관투자 50억원 유치 및 매출 100억원 달성 - 2020년 美 포브스지 선정 차세대 30세 이하 아시아리더 30인에 선정
룩야	농업 분야 수직 계열화 체계를 갖춘 종합 농업 플랫폼	- 입주기간 중 시리즈 A(43억원) 투자 유치 - 품목 다변화로 매출 100억원 달성 - 2020년 K-에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 -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등 종합 농업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 다만,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에서는 72.92점으로 외형적 실적에 비해 다소 저조한 평가를 받음.

- 이는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만족도 제고노력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및 인력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가치 기여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고, ▶종사자 임금체불,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협약사항 위반에서 감점을 받았기 때문임.

< 먹거리창업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지표배점	득점
공통사무	사업인프라	조직 및 인력운영	5.00	3.60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5.00	2.50
		사회적가치 기여	12.00	6.03
	사업활동	사업계획 집행수준	9.00	6.04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8.00	6.15
개별사무	사업성과	우수기업 발굴 및 선발	5.00	4.37
		투자 및 성장지원	15.00	13.65
		판로지원 및 고용창출	15.00	13.74
		대외적 우수사례성과창출 수준	3.00	2.46
	지도점검 이행노력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3.00	3.00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5.00	4.00
사용자만족도	만족도 제고노력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15.00	13.38
감점사항		임금체불, 세금체납	-2.00	-2.00
		종사자 퇴직금, 4대보험 미지급	-2.00	-2.00
		협약사항 위반	-2.00	-2.00
합 계			100.00	72.92

다. 민간위탁 재위탁 타당성

- 먹거리창업센터는 사업계획안과 사업 세부내용, 사업 영역별 예산 구성안이 미비하고, 사업예산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됨(2022.5.17.).

- 이후 종전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2022.6.30.)했으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위탁업무 개시기간(2022.10.1.) 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움.
- 한편, 2023년 먹거리창업센터의 민간위탁금은 5억 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2.8% 감액됨[참고자료].
 - 민간위탁금이 대폭 감소한 원인은 기존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건물관리비(3억 6천 6백만원)를 2023년부터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기 때문임.
- 동의안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시설 및 물품관리,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 입주자 모집 및 선정, ▶기술·마케팅·판로 지원 등 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업입주 사무공간, 교육장, 시제품 제작실 운영 등의 사무를 수행함.
- 따라서 농식품산업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인큐베이팅하여 시리즈A³⁾ 이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인력,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 수행방식일 수 있음.

3)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투자 규모를 뜻하는 표현으로 각 단계별로 기업가치의 10% 수준의 투자를 유치함. 시리즈 A는 시장의 검증은 거친 시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상이며, 산업분야별로 차이는 있으나 투자유치 규모 10~50억원 수준, 시리즈 B는 50~150억원, 시리즈 C 이상은 유니콘기업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수백억원의 투자를 받게 됨. 시리즈 A까지는 기업성장을 위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선주 형태의 투자를 받고, 시리즈 B부터는 투자자가 기업지배에 영향을 미치는 보통주 형태의 투자가 병행됨.

- 현재의 먹거리창업센터의 수탁기관인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는 최초 위탁(2016) 이후 재계약을 거쳐 6년째 운영 중이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2021년 9월부터 보조금 계좌가 가압류되어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임.
- 서울시는 2021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6천 3백만원)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완료⁴⁾했으나, 수탁업체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반납이 어려운 상태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위탁금 교부를 중단하고, 2022년 6월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수탁업체를 공모할 예정임.
- 수탁업체는 2019년 재계약 시점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공모와 적격자 심사 시에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임.
- 한편, 최근 정부와 민간의 스타트업 지원 트렌드가 종전의 인큐베이팅에서 시리즈B 이상의 기업을 육성하는 스케일업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음.

4)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2022.7.22.

5) 2015년 2억 7,182만원, 2016년 4억 1,069만원, 2017년 12억 5,000만원, 2018년 16억 6,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서울 시도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서울시는 인큐베이팅을, 정부와 민간은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

[참고자료] 서울먹거리창업센터 2023년 민간위탁 예산(안)

항목	내역	22년 예산 (천원)	23년 예산 (천원)	주요내용
인건비	기본급	205,320	181,920	상주인력 1명 감축 (5명 → 4명)
	퇴직총당금	19,249	15,160	상주인력 1명 감축으로 감소
	보험료	20,269	19,440	상주인력 1명 감축으로 감소
소 계		244,838	216,520	
운영비	사무용품비	2,400	2,400	
	공공요금 및 제세	27,624	27,624	보안관리, 해충방제비, 통신비, 정수기, 복합기, 화재보험
	수선유지비	29,708	29,708	청소비, 오픈키친관리비, 식물관리비, 홈페이지 유지보수, 시설 수선 예비비
	업무추진비	1,008	1,008	
	여비	480	480	
	관리비	365,735	-	- 23년 관리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
소 계		426,955	61,220	
사업비	입주기업 선발	5,200	5,600	- 수시선발비 1회→ 2회(변동) - 정기선발비 2회
	입주사 멘토링	84,000	-	- 전문가 멘토링으로 변경 - 투자 및 성장지원 사업비로 변경
	스타트업 성장지원비	22,000	-	- 사업 변경
	투자 및 성장 지원	-	111,000	- 입주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 도모 (스케일업, BM고도화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IR데모데이, 제품개발(R&D) 지원)
	판로개척지원	55,900	85,750	- 입주기업의 판로개척 확대 도모 - 작년 대비 대한민국식품대전, 클라우드 펀딩 지원, MD품평 상담회 추가
	글로벌진출 지원	-	45,000	-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싱가포르 IR 데모데이, 수출 유통 상담회, 해외 온라인몰 입점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13,800	43,000	- 홍보 마케팅 지원 확대 - 인플루언서 연계 콘텐츠, 기업 홍보 영상 제작 추가
	네트워킹행사	720	1,680	- 네트워킹 행사비 증액
소 계		181,620	292,030	사업비 약 1억원 증가
위탁수수료		9,500	10,000	- 위탁금 총액의 1.75%
합 계		862,913	579,770	관리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전체 민간위탁금 감소